

生産過剩으로 苦悶하는 比律賓의 시멘트工業

調 査 課

本稿는 Asian Industry (Monthly, Hong Kong) 1969年 12月號에서 拔萃翻譯한 것임

比律賓에서는 시멘트의 生産過剩과 價格下落 때문에 前例없이 시멘트 生産業者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들이 當面하고 있는 危機는 萬若 業界와 政府가 現在의 市場狀態를 다시 한번 冷澈한 立場에서 觀察하지 않는다면 事態는 더욱 惡化될 것 일 뿐이라는 事實이다.

專門家の 見解에 依하면 投資家들간의 狂的인 殺到로 生産은 年間 30% 以上으로 增加하고 있는데 反하여 國內시멘트 消費上昇率은 겨우 年 20%程度에 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指摘하고 있다.

이러한 不均衡狀態가 今年에는 國內市場에 18百萬 袋 以上の 超過量의 負擔을 지게 되었다.

萬若 다른 是正策이 取해지지 않는限 지금부터 5年後에 超過量은 78百萬袋로 될 可能性이 充分히 있다.

今年들어 産業施設의 大部分이 그 生産施設容量의 70% 以下로 稼動되었으며, 더구나 追加의 인 施設을 擴張하는 競爭이 그치지 않고 있다.

國內主要 13個 시멘트工場의 年間生産能力은 108百萬袋이며 建設中인 工場과 計劃에 依하면 5年以內에 總生産量은 아마 倍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比律賓에서 가장 規模가 큰 生産業體인 Republic Cement會社는 6.5百萬弗에 해당하는 施設材를 昨年에 導入하였으며 이와 競爭會社인 Filipinas Cement會社는 그의 生産能力을 倍로 增加시키는 計劃에 이미 着手했으며,

直後 Marinduque Mining and Industrial Corporation會社도 日間 約 1,300屯을 生産할 수 있는 濕式「프란트」를 日本 Kobe Steel會社에 發

注했다.

이 外에도 現在 4個의 施設이 施設中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無謀한 擴張

더욱 놀라운만한 事實은 比律賓産業銀行(The Development Bank of the Philippines)과 같은 機關이 늦게나마 既存業者들의 反對에도 不拘하고 新規 施設導入에 融資해주는 傾向이 나타나고 있다는 事實이다.

이와같은 決定의 背後에 있는 論理的 根據로 政府가 直接間接으로 시멘트 工業에 利害關係가 얽혀 있다는 것은 이미 지나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充分한 說明이 되지 못한다.

한 專門家の 概算에 依하면 175百萬弗의 借款中에서 70% 以上이 貸與되었거나 이미 既存施設에 投資되었다.

또한 아직도 政府와 投資家들이 資本의 公正한 運用을 하고 있는지 如否도 알길이 없다.

다른 한편 시멘트會社들이 現在의 價格暴落으로 利潤「마진」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하는데 對하여 産業銀行 當局은 조금이라도 利潤은 내고 있으니 그래도 시멘트會社는 企業은 企業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그들 論爭의 眞價에 關係없이 價格이 새로이 低落하고 있다는 事實만은 疑心할 餘地가 없다.

昨年 시멘트 1袋當(1袋는 約 50kg) 生産費는 美弗 1弗였다.

今年 3月 都賣價格은 1袋當 96cents로 떨어졌으며 7月에는 겨우 90cents를 維持하였다.

實際로, 小賣商은 袋當 84cents와 88cents로 損害를 보며 販賣하고 있다.

價格의 이런 내림 時勢率은 日本이 袋當 75 cents로 市場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을 比律賓은 이보다 싸게하여 머지않아 東南亞에서 시멘트의 가장 싼 供給國이 될 것이 確實視된다.

豫測할 수 있는바와 같이 이러한 可能性은 外貨를 獲得하는 目的이 아니라도 最少한 이 개운치 못한 超過量의 負擔을 덜기 爲해서도 比律賓의 시멘트 生産業者들은 輸出市場을 찾게하는 契機가 될 것 같다.

今年初 CAP Marketing Corporation (CAPM C)라 불리는 새로운 機構를 比律賓시멘트協會가 設立한 것도 이런 見解의 目的을 가진 것이라 하겠다.

同機構의 目的은 Singapore, Vietnam, Indonesia, Thailand와 같은 國家들의 輸出市場을 調査함은 勿論, 시멘트産業 全體에 關한 實質的 販賣計劃을 樹立하고 實施하는 任務를 띄고 있다.

輸 出

現在로서는 同機構의 最初의 努力은 成功하고 있는것 같이 보인다.

比律賓은 9월에 最初의 委託品으로 越南에 10,000屯을 船積하였으며 年末前에는 사이곤에 또 다른 43,000屯을 輸出하기를 希望하고 있다.

세계의 主要시멘트 生産業者(Republic, Filipinas, Marinduque)들이 이 計劃에 參與하고 있으며 그들은 各會社의 生産量에 比例하여 輸出量을 分擔하고 있다.

如何間 이들 越南에 對한 船積은 越南戰이 終熄된후 오랫동안 시멘트市場으로 이를 確保할수 없다면 長期間의 重要性은 갖고 있지 않다 하겠다. 모르긴해도 越南戰後 再建計劃은 계속해서 시멘트 需要를 招來할 것이며 그 境遇에 比律賓은 또한 亞細亞의 餘他國과 競爭의 地位에 놓이게 될것임은 틀림없는 事實이다.

輸出市場에서 가장 큰 競爭國은 日本을 제쳐 놓고라도 戰爭으로 兩斷된 國土에 이미 確固한 기반을 構築해는 韓國과 台灣인 것이다.

네번째의 競爭國은 아마 Thailand가 될 것으로 豫想된다.

近年 建設「시즌」의 頂上期에 泰國은 實際로 國內消費量의 10%를 輸入해온 것이 事實이지만

同國에서 가장 큰 시멘트 業者는 重要한 施設容量을 가진 두개의 施設을 세울것을 포함한 大規模擴張計劃에 着手하고 있다.

이들 諸般與件을 考慮에 두고 比律賓産業의 「리더」들은 政府의 投資局에 依하여 이미 「오파」된 獎勵策外에도 業界自體에서의 輸出 補助金에도 努力하고 있다.

그러나 業界가 그와 같은 小道具에만 永遠히 依存하여야만 하는지는 論爭의 餘地가 있다 하겠다.

어느 生産業者가 指摘한 바와 같이 事情이 이렇다 하더라도 滅亡시키는 價格에의 輸出(exports at cut-throat prices)은 “利潤의 增大가 아니라 기껏해야 量的 增大를 가져올 뿐일 것이다.

國內市場

바로 위와같은 사정때문에 시멘트 生産業者가 그런 어려운 일들을 對象으로 攻擊하여야만 하는 소지가 있는 것이다. 業者들은 無限한 擴張競爭을 止揚하고 合理的인 利潤을 追求하는 能力에 危險을 招來함이 없이 진짜 低原價로 시멘트를 生産하기 爲하여는 經營을 合理化하여야만 한다.

머지 않아 그들 自身 國內市場은 漸增하여 가는 量的增大를 차차 吸收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爲하여는 于先 첫째, 費用이 적게드는 住宅計劃을 大量으로 着手하여야만 할 것이다.

現在 大 마닐라 地域만도 집없이 쪼그려 앉아 있는 사람이 約 300,000명에 達하고 있다.

더구나, 前例없이 두번이나 大統領職을 確保한 Marcos 比律賓 大統領은 汎國家的인 高速道路建設과 其他 다른 建設事業을 계속 推進하여 나갈 것임이 確實視되며 이 計劃으로 國內시멘트 生産業者들에게는 돈을 벌수있는 放出口가 될 것임은 疑心의 餘地가 없다 하겠다.

이렇게 生覺할 때 現在 남아돌아가는 超過量이 決코 나쁜일만인 것은 아닐듯 하다.

業者들은 生産을 合理化하고 調節하는 努力을 참고 견디어야만할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그들이 그렇게도 追求하는 安定性을 確保하기란 決코 어려운 일일 것이다.